

국내·외 최근 CALL 분야 연구 동향 연구

김지영 (중앙대학교)

Kim, Jie Young. (2007). Analysing recent CALL research in Korea and in the world.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10(3), 109-129.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and analyze articles on CALL in the journals published in Korea and in the world. A total of 262 articles are selected from three journals in Korea and three in the world and analyzed in terms of research topic, research methodology, and research participants. The study reveals that the major topic for articles both in Korea and worldwide is language skills. As for research methodology, quantitative methods have been used far more than qualitative ones. The participants of the articles are mostly university students. The comparative analysis also reveals that articles in Korea research more on the topic of evaluation, employ more qualitative methodology, and have mo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than worldwide journal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offered.

I. 서론

컴퓨터 보조 언어학습 분야(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CALL)는 1960년대의 메인프레임 시대 교육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그 시초로 하여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메인프레임 시대를 거쳐 마이크로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활용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에 주를 이루었다면, 1980년대에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연구의 추세였으며, 1990대에 들어서는 웹 기반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CALL 분야는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따라 연구 주제도 따라서 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변화의 추세가 매우 빠른 편이다. 또한 CALL 프로그램의 사용, 온라인 학습, 웹 기반 활동과 과제 수행,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도구의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CALL분야 연구 논문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의 CALL 분야는 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가 1997년에 창립되고 학술지를 발행하면서 다양한 주제와 연구 방법을 통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ALL 분야 연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그에 따라 많은 연구가 실행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CALL 연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적은 편이며(Debski, 2003; Felix, 2005; Hubbard, 2005) 국내에서의 연구는 전무하다. 기존 논문의 분석 연구는 그 분야의 연구 방법이나 내용 면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김진완(2004)은 영어교육전반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연구에 비하여 국외 연구들이 질적 연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앞으로의 국내 연구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CALL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외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5년 동안 국내·외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연구 대상별로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 CALL 연구 분야에 바람직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CALL 연구의 학문적 성격

CALL에 대하여 학자마다 다양한 시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Levy(1997)은 CALL 에 대하여 “the search for and study of applications of the computer i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p. 1)”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의 정의는 언어 교수 학습에 있어서의 컴퓨터 적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Beatty(2003)는 CALL을 “any process in which a learner uses a computer and, as a result, improves his or her language” (p.7)라고 정의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 학자의 정의가 함포하고 있는 시사점은 16년간의 시대차이에 따라서 CALL 연구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이전에 시스템 개발과 평가에 대한 CALL 연구가 주류였다면 (Fisher & Farris, 1999; Grace, 1998; Jones, 1991; McCarthy, 1998) 2000년대에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CALL 분야 연구도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Liou, 2000; Peterson, 2006; Son, 2007)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CALL은 본질적으로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Levy(1997)는 제 이 언어 습득론, 응용언어학, 인공지능연구, 인지 심리학, 컴퓨터 과학, 교육 공학, 정보처리, 언어 교수법, 언어학, 자연언어처리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CALL 분야와 관련 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Levy와 Stockwell(2006)은 좀 더 최근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CALL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를 디자인, 평가,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이론, 연구, 실행, 그리고 테크놀로지 라는 7가지 분야로 설명하고 있다.

CALL의 학문적 성격은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과 언어 학습에 관련된 연구가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범위가 방대하며, 테크놀로지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교육과 언어 교육의 연구 패러다임이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해 나아감에 따라 CALL 분야의 연구 중심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통시적인 CALL 분야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고찰은 현재의 CALL 연구에 관한 관점을 제공하여 준다. 즉 최근의 연구 경향은 시스템 개발 연구와 더불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였을때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초점이 있다는 것과 CALL 관련분야의 발달에 따라 그 주제도 최근의 경향에 따른다는 것이다.

2.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들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로는 우선 한국 영어교육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특별호에 게재된 논문들로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논문을 분석하였다. 차경환(2006a)은 *영어교육* 학술지 1호(1965)부터 60권(2005)까지 게재된 논문들 중 듣기를 주제로 한 논문 60편을 주제, 연구 대상자의 숙련도와 연구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그 동향을 시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주제에 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재분석, 평가, 학습전략 등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뉴스와 발음 분야의 연구는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토익, 토플에 대한 연구는 많은 반면에 중·고등학생 대상의 듣기 연구는 적었다. 연구 접근법에 대한 분석결과로는 양적 연구가 압도적이며 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2006)은 *영어교육* 학술지 1호부터 2005년 12월까지 발표된 논문 중에서 말하기 관련 논문을 연구장소, 디자인, 자료수집 유형, 통계분석법, 연구기간, 연구대상, 연구 범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거시적 관점에서의 질적연구가 부족하며 연구기간이 너무 짧으며 조사대상도 대학생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이 특별호에는 독해 관련 논문 분석(오준일, 2006), 영작연구에 관한 논문 분석(강동호, 2006), 문법교육(심진영, 2006), 어휘교육(박준언, 2006), 영어 교재(이성희, 2006), 평가(이영식, 2006), 특수목적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전지현, 2006), 그리고 영어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김진완, 2006)등 각 분야에 관련된 논문을 분석한 연구들이 게재되어 있다. 이들 연구들의 공통적인 분석결과는 양적연구와 대학생 대상 연구의 편중이었으며, 향후 바람직한 연구 방향의 제

[표 1] 김진완(2004)의 연구 방법과 내용 분류표(p. 55)

연구방법론			연구 내용
실증적 연구 방법		이론적 연구방법	기술적 연구내용
양적연구방법	질적연구방법		
통계분석 차의 유형	사례연구	이차적, 개념적 연구방법	해석적 연구내용 이념적 연구내용
	대화분석		
	민족문화기술		
	서술 연구		

(p. 55)

시로 공통적인 것은 질적연구의 확대와 중·고등대상의 연구 확충이었다.

김정렬(2002)은 초등영어교육 내에서 연구 방법의 흐름을 조사하며 문헌, 조사, 실험, 개발, 그리고 분석 연구 방법에 따라서 논문을 분류하였다. 김진완(2004)는 국내에서 발생한 영어교육과 해외에서 발행된 *TESOL Quarterly*에 게재된 논문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우선 연구내용 분석을 위하여서는 기술적 연구내용, 해석적 연구내용, 이념적 연구 내용으로 구분하고, 연구 방법 분석 틀로는 우선 실증적 연구 방법과 이론적 연구 방법으로 크게 나누고 실증적 연구 방법 내에서 다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누고 다시 세분화하였는데 이는 [표 1]과 같다.

CALL관련 논문 분석연구를 살펴보자면, Felix(2005)는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게재된 52개의 CALL 관련 실험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의 수, 연구 디자인, 사용된 테크놀로지, 교육환경, 언어, 연구에서 가르친 언어 기술, 그리고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변인을 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Felix는 CALL 관련 실험 논문들 중 논문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 디자인에 대한 기술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선행연구 탐색 부족, 잘못된 변인의 선택 등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Felix는 바람직한 연구방향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Hubbard(2005)는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게재된 CALL 관련 연구 78편을 대상으로, CALL 연구에 대한 8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8가지 가설은 1)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적음, 2) 설문지의 과다 사용, 3) 연구 기간의 제한, 4)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부족, 5) 과제 유형 대한 경험 부족, 6) 전반적으로 CALL에 대한 경험 부족, 7) 연구 이전의 훈련 부족, 그리고 8) 연구 기간 동안의 훈련 부족이었다. 연구결과 8가지 가설은 데이터양의 부족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항목들이 대부분이었으며, Hubbard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연구 방법에 대한 제시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최근 2003년부터 2007년 5월까지 약 5년간 발간된 국외 학술지 3가지와 국내에서 발간된 3가지 학술지에 게재된 CALL 분야 논문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분석할 학술지를 선정한 기준은 CALL과 관련된 학술지를 우선으로 하여 국외 학술지의 경우는 그 역사와 JCR을 참조하고, 국내 발행 학술지의 경우는 학진 등재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 대상인 국외 학술지로는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Journal of Computer-Assisted Learning*, 그리고 *TESOL Quarterly*를 선정하였으며, 국내 학술지로는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외국어교육*, 그리고 *영어교육*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은 1년에 5회 간행되며 2003년에서 2007년 까지 총 22권의 학술지에 수록된 93개의 논문이 분석대상이다. *Journal of Computer-Assisted Learning*

은 2003년에는 1년에 4차례 간행되었으며 이후 2004년부터 1년에 6회 간행되어 2007년 4호까지 포함하여 총 26권 189개의 논문 중 CALL 관련된 6개의 논문을, 그리고 계간지인 *TESOL Quarterly* 18권에 수록된 106개의 논문 중 CALL 분야 13개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3개의 학술지에서 총 발간된 66권 388개의 논문 중 112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국내에서 간행된 학술지로는 해외에서 간행된 학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학술지들로 선택하려고 하였다. 우선 멀티미디어 언어 학회에서 발간한 *멀티미디어 언어교육*이 있는데, 이 학술지는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1년에 2회 출판되었으며, 이후 2006년부터는 3회 출판되어 총 10권 105개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Journal of Computer-Assisted Learning*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국내 학술지로 한국 교육정보 미디어 학회에서 발간하는 *교육정보 미디어*는 2003년부터 2007년 2호 까지 모두 111개의 논문이 있었으나, 그중 영어 교육과 연관된 논문은 단 1편뿐이었다. 따라서 이 학회지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대신 학진 등재지들 중 CALL과 관련된 논문이 많은 외국어 교육학회에서 간행하는 *외국어교육*을 선택하였다. *외국어교육*은 계간지로서 2003년부터 2007년 2호 까지 총 18권 292개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 CALL 관련 34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TESOL Quarterly*와 유사한 학술지로는 한국영어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계간지인 *영어교육*을 선택하였는데, 2003년부터 2007년 1호 까지 총 17권에 게재된 237개의 논문 중 CALL 관련 11개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종합적으로 국내·외 6 가지 학술지에 게재된 1022개의 논문들 중 CALL 관련 논문인 262개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다. 다음의 [표 2]는 이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2] 연구 대상 논문

논문명		전체 논문 수	연구대상논문수 (%)
국외	<i>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i>	93	93 (100.0%)
	<i>Computer-Assisted Learning</i>	189	6 (3.2%)
	<i>TESOL Quarterly</i>	106	13 (12.3%)
국내	<i>멀티미디어 언어교육</i>	105	105 (100.0%)
	<i>외국어교육</i>	292	34 (11.6%)
	<i>영어교육</i>	237	11 (4.6%)
합계		1022	262 (25.6%)

2.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각 학술지에 게재된 CALL 관련 논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CALL 논문에 대한 전체 수를 파악하였으며, 논문의 주요 연구 주제를 분류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분석 범주를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모든 연구 논문은 1) 연구 주제와 2) 연구 방법 그리고 3) 연구 대상 등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분류하였다.

논문의 초록과 원문을 살펴본 후 미리 선정된 분류 항목에 의해서 분류하였다.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항목이 추가되기도 하였으며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되었다. 주제에 따라 논문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한 논문이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비교적 비중이 크다고 판단되는 주제에 중점을 두어 분류하였다.

1) 연구 주제

연구 주제를 분류하기 위하여 유현정(2006), 김진완(2004), 이성희(2005)의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표 3]와 같은 주제 분류 항목을 개발하였다.

[표 3] 주제 분류

번호	분석분류	세부사항
1	이론	동향, 분석, 연구 방법론
2	언어기능	복합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발음 철자법
3	교육과정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 평가
4	상호교류	상호작용 유형, 교사 학습자간 상호작용
5	평가	평가 시스템 개발 및 평가
6	시스템 개발	시스템 분석 개발 및 평가
7	교사교육	교사교육 및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사 태도 분석
8	교수법	교수법 및 지도방법
9	학습자 행동	행동 유형분석
10	학습 심리	동기, 불안, 인식, 자율성
11	사회언어학	문화, 화용, 문화간 의사소통

이론항목에서는 문헌 연구들 중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연구 동향을 고찰한 논문들을 분류하며, 언어 기능은 다시 세분화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발음, 철자법등을 세부항목으로 정하였다. 이 중 복합으로 분류한 항목은 논문의 주제가 언어 기능을 두 가지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3번 분류 항목은 교육과정이나 교수요목을 개발하는 논문이 여기 속하며, 상호교류 항목은 교실 언어를 분석하거나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

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평가를 개발하거나 활용한 연구들을 분류하는 항목이다. 6번 분류항목인 시스템 개발 항목은 CALL 연구에서 많이 발견되는 코스웨어나 프로그램, 혹은 웹 사이트를 교과목에 맞게 개발하고 적용한 논문의 주제를 분류한 것이다. 또한 교사교육은 교사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들을 분류하였고,, 교수법 항목에서는 교수법 및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논문을 분류하였다. 학습자 행동에서는 학습자들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학습자 행동유형 양식을 분석하는 논문들을 분류하였으며, 학습 심리 항목에서는 학습 동기, 불안, 인식, 자율성 등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을 분류하였다. 사회 언어학 항목은 문화, 화용, 문화 간 의사소통 등을 연구 주제로 한 논문들을 분류하였다.

2) 연구 방법에 따른 분석 방법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는 일차적으로는 양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 그리고 문헌 연구로 범주화하여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모두 분류하기에 한계가 있다. 김진완(2004)은 연구 방법 분류에 있어서 양적 연구 방법은 실증적 연구방법으로서 가설 검증 연구 방법이라고 정의하여 사용된 통계 방식에 따라 세분하여 분석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 대화 분석, 민족 문화 기술, 그리고 서술연구로 세분화 하여 분석하였다. Seliger와 Shohamy(1989)는 연구 방법을 질적연구, 서술연구, 그리고 실험 연구로 크게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변량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연구를 따로 구분하여 이러한 분석을 실시하는 연구들이 기존의 질적, 기술, 그리고 실험 연구라는 구분의 틀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어 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Cohen과 Manion(1994)은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Hubbard(2005)는 그의 연구에서 CALL 관련된 논문들을 양적 그리고 질적 연구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서 양적연구는 어떠한 종류이건 통계적인 분석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 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논문을 양적 연구방식으로 분류하고 이외의 것들을 질적연구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론 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연구, 그리고 개발 연구 방식으로 분류한다. 양적/질적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한 논문을 따로 분류하고자 함은 최근 연구 추세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CALL 분야 연구 논문들이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두 가지 연구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논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CALL 분야에서는 시스템이나 콘텐츠 개발 연구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방법은 개발 단계나 그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문헌 연구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질적이거나 양적 연구 방법을 개발한 시스템의 평가에 사용하기도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따로 분리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양적 연구는 연구 방식을 세분화하여 통계그룹을 둔 실험연구, 설문조사연구 그리고 기타 양적 연구로 이차 분류 한다. 설문 조사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비롯하여 양적 데이터 분석으로 연구문제에 해답을 구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기타 양적연구는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와 연구 자료 분석을 할 때 단순히 기술 통계만을 사용한 연구 논문을 포함한다. 질적연구는 사례연구, 대화분석연구, 민족문화 기술 연구 방식으로 세부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는 질

적 연구 방식으로 분류하였으며 CALL 연구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제공하는 연구를 분류한다. 대화 분석연구 항목은 연구 자료를 다양한 대화 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연구 논문을 포함하게 된다. 민족 문화 기술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있는 실제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며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연구들로써, 연구자의 노트, 인터뷰, 설문 등 다양한 연구자료를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발 연구는 연구 방법 분류 방식과는 다를 수도 있으나, 개발 과정만을 기술하였는지, 시스템을 개발한 후 평가를 하였는지, 그 평가가 이용자의 성취도를 평가하였는지, 혹은 이용자의 태도를 설문하였는지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 분석을 위한 분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방법 분석 분류

1차 분류	2차 연구
문헌 연구	-
양적 연구	실험연구 설문 조사 연구 기타 양적 연구
질적연구	사례연구 대화분석 연구 민족 문화 기술 연구
양적/질적 연구	-
개발 연구	개발 서술 연구 개발과 평가연구 개발과 이용자 태도연구

IV. 연구 결과 및 토의

1. 국내외 학술지 개관

해외 발간 학술지 중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은 CALL 분야에서 중요한 학술지로서 총 93편의 논문을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Journal of Computer-Assisted Learning*은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다양한 교육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게재 된 학술지이다. 그 주제가 광범위하여, CALL 영역의 논문은 지난 5년간 게재된 총 189편의 논문 중 단 6편으로 3.2%에 불과하다. *TESOL Quarterly*는 영어교육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큰 학술지로서 40여년의 역사를 지녔다. CALL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모두 다루므로 이곳에 게재된 CALL 분야 논문은 지난 5년간 106편중 13편으로 12.3%이다. *Journal of Computer-Assisted Learning*에 비하여 *TESOL Quarterly*가 CALL 분야논문 게재율이 높은 것은 2003년 37권 3호가 말뭉치(corpus) 연구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호였기 때문이다.

국내 발간 학술지 중 *멀티미디어 언어교육*은 1997년에 발간된 이래로 국내 CALL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을 게재하여 왔으며 총 105개의 논문이 본 연구 대상이었다. *외국어교육*은 한 권에 15개에서 20개가량의 많은 논문을 수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최근 5년간 수록된 전체 논문 수는 292개에 달하며, CALL 분야 관련 논문수도 34개로 총 논문 수 대비 11.6% 이었다. *영어교육*은 국내 영어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학술지로서 237개의 논문 중 CALL 관련 11개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전체 논문수 대비 CALL 분야 논문의 게재율은 4.6%이다.

국내·외 학술지의 전반적인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우선 한 권당 게재하고 있는 논문의 수가 해외 학술지의 경우 평균 5.9개의 논문인데 비하여 국내 학술지는 학술지 한권 당 14.1개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해외 학술지는 연구 논문 이외에도 연구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칼럼이나 책 혹은 프로그램 리뷰와 같은 다른 독립된 장을 게재하고 있어 국내 학술지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연구 주제 분석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국외/국내발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 분포는 [표 5]와 같다. 우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제는 언어 기능에 관한 것으로 114편(43.5%)이며, 이론에 관한 연구는 25편(9.5%), 시스템개발은 24편(9.2%), 사회언어학은 21편(8.0%), 교육과정은 20편(7.6%)으로 나타났다. 교수법과 학습심리는 모두 16편(6.1%)이며 평가는 12편(4.6%), 학습자행동은 3편(1.1%), 상호교류는 1편 (0.4%)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5] 국외/국내 학술지 주제별 분류

분류	국외학술지	국내학술지	합계
이론	17편 (15.2%)	8편 (5.3%)	25(9.5%)
언어기능 소개	44편 (39.3%)	70편 (46.7%)	114(43.5%)
교육과정	10편 (8.9%)	10편 (6.7%)	20(7.6%)
상호교류	1편 (0.9%)	0편 (0.0%)	1(0.4%)
평가	1편 (0.9%)	11편 (7.3%)	12(4.6%)
시스템 개발	14편 (12.5%)	10편 (6.7%)	24(9.2%)
교사교육	5편 (4.5%)	5편 (3.3%)	10(3.8%)
교수법	3편 (2.7%)	13편 (8.7%)	16(6.1%)
학습자 행동	3편 (2.7%)	0편 (0.0%)	3(1.1%)
학습 심리	3편 (2.7%)	13편 (8.7%)	16(6.1%)
사회언어학	11편 (9.8%)	10편 (6.7%)	21(8.0%)
합계	112편 (100%)	150편 (100%)	262(100%)

국외 논문의 경우 가장 빈번히 다루어진 주제는 언어기능이며 논문 총 112편 중 44편(39.3%)이 이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론(17편, 15.2%), 시스템 개발(14편, 12.5%), 사회언어학(11편,

9.8%), 교육과정(10편, 8.9%)의 주제가 그다음으로 빈번히 다루어져 왔음이 조사되었다. 반면 가장 적게 다루어진 주제는 상호교류(1편, 0.9%), 평가(1편, 0.9%), 교수법(3편, 2.7%), 학습심리(3편, 2.7%), 사회언어학(3편, 2.7%) 그리고 교사교육(5편, 4.5%)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간행 학술지의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연구 대상 논문 중 언어기능 관련 논문이 70편(4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수법(13편, 8.7%)과 학습심리(13편, 8.7%), 평가(11편, 7.3%), 교육과정(10편, 6.7%)과 시스템 개발(10편, 6.7%) 그리고 사회언어학(10편, 6.7%) 주제가 그 다음으로 큰 게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론 분야는 8편(5.3%)으로 그다지 높은 게재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상호 교류나 학습자 행동에 대한 연구는 CALL 분야 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교사교육(5편, 3.3%) 분야도 게재 빈도가 낮은 편이다.

언어기능 분류 내에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쓰기에 관한 논문은 모두 24편(21.1%)이며,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논문주제로 삼은 논문편수는 20편(17.5%), 문법 19편(16.7%), 어휘 19편(16.7%), 듣기 13편(11.4%), 읽기 5편(4.4%), 발음 2편(1.8%), 철자법 2편(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6]는 이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표 6] 언어 기능별 분석표

언어기능별 분류	국외 학술지게재편수 백분율(%)	국내학술지게재편수 백분율(%)	합계 백분율(%)
언어기능(복합)	4편 (9.1%)	16편 (22.9%)	20(17.5%)
언어기능(듣기)	3편 (6.8%)	10편 (14.3%)	13(11.4%)
언어기능(말하기)	2편 (4.5%)	8편 (11.4%)	10(8.8%)
언어기능(읽기)	2편 (4.5%)	3편 (4.3%)	5(4.4%)
언어기능(쓰기)	7편 (15.9%)	17편 (24.3%)	24(21.1%)
언어기능(문법)	10편 (22.7%)	9편 (12.9%)	19(16.7%)
언어기능(어휘)	12편 (27.3%)	7편 (10.0%)	19(16.7%)
언어기능(발음)	2편 (4.5%)	0편 (0.0%)	2(1.8%)
언어기능(철자법)	2편 (4.5%)	0편 (0.0%)	2(1.8%)
언어기능 소계	44편 (100.0%)	70편 (100.0%)	114(100.0%)

국외 논문의 경우 어휘(12편, 10.7%), 문법(10편, 8.9%), 쓰기(7편, 6.3%)의 주제가 가장 빈번히 논문에서 다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말하기(2편, 1.8%), 읽기(2편, 1.8%), 발음(2편, 1.8%), 철자법(2편, 1.8%)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진 주제들이었다.

국내 논문들의 언어기능 측면만 살펴보자면 쓰기(17편, 11.3%)와 복합(16편, 10.7%) 분야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듣기(10편, 6.7%), 문법(9편, 6.0%), 말하기(8편, 5.3%), 어휘(7

편, 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읽기(3편, 2.0%)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발음과 철자법 분야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연구 대상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국내 영어교육의 주류를 이루게 됨에 따라 발음과 철자법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외 주제별 연구동향을 비교해 보면 국외 학술지와 국내 학술지 모두 언어기능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을 보자면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는 해외 학술지에서 좀 더 많은 게재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게재 비율은 좀 낮은 편이다. 국외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이론 연구를 예를 들자면, Skehan(2003)은 형태초점학습과 테크놀로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Hulstijn(2003)도 결합주의(connectionism)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듣기 학습과의 관계를 서술하는 이론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이외에도 Zapata(2004), Felix(2005), Hubbard(2005) 등은 연구 동향이나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특히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9권 2-3호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이론적 기반을 다룬 다양한 논문들이 게재 되어 있다(Colpaert, 2006; Cushion, 2006; Farmer & Gruba, 2006; Hemard, 2006; Ward, 2006). 이에 반하여 국내 학술지는 이후의 연구 방법 분석 결과에서 좀 더 상술할 것이지만, 이론적 문헌 연구보다는 실증적 연구방법(김진완, 2004)을 사용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차경환(2006b)의 논문은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용어인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영어교육 사용의 가능성과 실행가능성에 관하여 논하고 있으며, 조세경(2006)은 iPod에서 제공하는 포드케스팅의 교육적 활용에 관하여 이론적 배경과 실제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문헌 연구는 국외에서 보다 국내에서 발표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현재 국내의 각종 학회의 편집위원회 활동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편집위원들은 각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론연구가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타당하게 개진해 나아가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으므로 이론 연구의 게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연구자들은 실증적 연구의 게재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게재 비율이 낮은 이론 연구보다는 실증 연구에 더 무게를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 분야의 이론적 고찰은 기타 실증적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논문이므로 계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절실하다 하겠다.

학습자 심리에 관한 연구는 해외 학술지에 게재 비율보다 국내 학술지 게재 비율이 높은 편인데,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는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추세라고 생각된다.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학습자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나 테크놀로지를 교실에서 사용하였을 때 학습 불안도 등을 연구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장진태, 2003; Choi, 2004).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라고 생각되는 분야는 평가 분야로서 해외 학술지(0.9%)에 비하여 국내 학술지 게재비율(7.3%)이 높다. Hemard 와 Cushion(2003)은 온라인 테스트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한 논문을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에 게재하고 있으며, 최인철(2004)은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채점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연구하였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영작 채점

에 자동 채점기능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최인철, 임해창, 박정, 2003). 온라인 테스트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컴퓨터 기반 테스트가 TOEFL의 근간이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연구자들의 평가 분야에 있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은 실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분석

연구방법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전반적인 연구 방법 분석 결과를 보면, 양적연구는 총 107편(40.8%), 질적연구가 50편(19.1%), 개발연구는 48편(18.3%), 문헌연구는 39편(14.9%),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적/질적 연구는 18편(6.9%)에 불과하다.

[표 7] 연구 방법 분석 결과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연구	개발연구	총계
국외논문계	17 (15.2%)	38 (33.9%)	20 (17.9%)	7 (6.3%)	30 (26.8%)	112 (100%)
국내논문계	22 (14.7%)	69 (46.0%)	30 (20.0%)	11 (7.3%)	18 (12.0%)	150 (100%)
총계	39 (14.9%)	107 (40.8%)	50 (19.1%)	18 (6.9%)	48 (18.3%)	262 (100%)

해외 학술지에 나타난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38편(33.9%)이었고, 개발연구는 30편(26.8%), 질적연구는 20편(17.9%), 문헌연구는 17편(15.2%),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적/질적 연구는 7편(6.3%)으로 가장 적었다. 국내 학술지 역시 양적연구가 69편(46.0%)으로 최다 편수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질적연구 30편(20.0%), 문헌연구 22편(14.7%), 개발연구 18편(12.0%),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편의 양적/질적 연구(7.3%)가 있었다.

해외 학술지와 국내 학술지 간에 연구 방법을 비교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국내·외 CALL 분야 연구에 있어서 연구 방법으로 양적 연구 방법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 양적연구 방법은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었으며, CALL 분야에서도 테크놀로지의 사용이 학습자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던 논문들 중에서도 테크놀로지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송희심, 이은정, 2004; 한종임, 2004; Fuente, 2003; Sun & Dong, 2004)가 많은 수를 차지하여 연구 방법에 있어서 양적연구 특히 실험연구가 중요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분야는 국내·외 차이가 있다. 개발연구가 해외 학술지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논문수를 보이는데 비하여 국내 학술지들은 질적 연구가 오히려 그 두 번째를 차지한다. 김진완(2004)은 국내 학술지 *영어교육*과 해외 학술지 *TESOL Quarterly* 비교 연구 하면서 국내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 중 양적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외 학술지에 실린 양적 연구 논문에 비하여 높으며 질적연구 논문 수는 그 반대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경향

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그의 연구는 2004년까지 14 년간의 논문을 비교분석한 것으로써 5년 단위로 연구 추세를 분석한 김진완의 연구 결과는 2000년도 이전의 연구들이 양적연구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영어교육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의 연구 논문들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국내 연구자들이 질적 연구를 점차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Kern과 Warschauer(2000)이 CALL 분야에 있어서 양적연구와 더불어 질적연구 또한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유현정(2006)은 국내 영어교육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며, 최근에 와서 연구 방법상의 일반적인 변화는 질적 연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양적/질적 방법이 함께 사용되는 연구도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CALL 분야의 연구들이 국내·외 모두 양적 연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연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질적연구 방법이나 양적/질적 혼합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컴퓨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혹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과 과정이나 교수요목 등을 개발하고 그 과정을 이론적 배경과 함께 기술하는 개발 연구는 중요한 연구로 국외 학술지에서는 두 번째 추세로 나타났으나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었다.

1) 연구 방법 2차 분석

연구 방법 분류 항목들 중 양적연구 방법과 질적연구 방법 그리고 개발연구 방법은 그 하위 연구 방법을 세분화 하여 분석하였다.

(1) 양적연구 2차 분석

양적 연구 방법은 다시 실험연구, 설문 조사 연구, 그리고 기타 양적연구로 세분화 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양적 연구 방법 세부 분석

세부 항목	국외학술지게재편수 백분율(%)	국내학술지게재편수 백분율(%)	세부항목별 합계 백분율(%)
실험 연구	18 (47.4%)	29 (42.0%)	47 (43.9%)
설문조사연구	7 (18.4%)	22 (31.9%)	29 (27.1%)
기타양적연구	13 (34.2%)	18 (26.1%)	31 (29.0%)
학술지별 합계	38 (100.0%)	69 (100.0%)	107 (100.0%)

양적연구방법의 2차 분석 결과를 보면 국외 학술지의 경우 실험연구는 18편(47.4%)을 차지하

고 있으며, 기타 양적연구가 13편 (34.2%), 설문조사연구가 7편(18.4%)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의 경우는 실험연구(29편, 42.0%)가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한 추세이나 설문조사연구가 22편 (31.9%)로 월등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기타 양적연구(18편 26.1%)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논문들 중에서 설문연구가 강한 추세를 보이는 것은 테크놀로지의 사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이나 반응 등을 조사한 논문(Al, 2003; Choi, 2004; Kwon, 2003) 이 많으며 혹은 학습자 요구 분석으로(Kim, 2005) 설문 연구 조사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2) 질적 연구 방법 2차 분석

질적 연구 방법은 사례연구, 대화 분석 연구, 그리고 민족문화 기술 연구로 세분화 하였으면 그 분석 결과는 표 와 같다.

[표 9] 질적 연구 방법 세부 분석

세부항목	국외학술지게재편수 백분율(%)	국내학술지게재편수 백분율(%)	세부항목별 합계 백분율(%)
사례연구	14 (70.0%)	12 (40.0%)	26 (52.0%)
대화분석연구	5 (25.0%)	4 (13.3%)	9 (18.0%)
민족문화기술	1 (5.0%)	14 (46.7%)	15 (30.0%)
학술지별 합계	20 (100.0%)	30 (100.0%)	50 (100.0%)

질적연구 방식의 세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사례연구가 14편 (70.0%)이었고, 대화분석연구가 5편(25%) 그리고 민족문화 기술 연구는 1편(5.0%)이었다. 국내 학술지는 민족문화 기술연구가 14편(4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례연구 12편 (40.0%), 대화분석연구 4편(13.3%)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국내 논문에서 민족 문화 기술 연구의 높은 비율인데, 국내 연구자들이 질적 연구 방법에 익숙하여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교실 상황에서 사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교실 상황 내에서 인터뷰, 노트, 과제물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양적 연구 방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의 증가라는 세계적인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는 고무적인 사항이 아닐 수 없다.

(3) 개발 연구 방법 2차 분석

개발연구는 그 연구방식에 따라 시스템 개발 과정을 기술한 개발 서술 연구와 시스템 개발 이

후 성취도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개발과 평가 연구, 그리고 개발이후 이용자의 이용후기 등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개발과 설문 연구로 세분화 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와 같다.

[표 10] 개발 연구 방법 세부 분석

세부항목	국외학술지게재편수 백분율(%)	국내학술지게재편수 백분율(%)	세부항목별 합계 백분율(%)
개발서술연구	19 (63.3%)	11 (61.1%)	30 (62.5%)
개발과 평가연구	5 (16.7%)	2 (11.1%)	7 (14.6%)
개발과이용자태도연구	6 (20.0%)	5 (27.8%)	11 (22.9%)
학술지별 합계	30 (100.0%)	18 (100.0%)	48 (100.0%)

국내외 학술지 공통으로 개발 단계만을 기술한 개발 서술 연구 항목이 가장 우세한 연구 방법으로(국외 63.3%, 국내 61.1%) 분석되었으며, 개발과 이용자 태도 연구, 그리고 개발과 평가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 연구를 할 때, 제한된 기능과 콘텐츠를 가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프로토타입으로 실제 현장에 투입하여 학습자 성취도를 평가하여 개발된 시스템을 평가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개발과 평가 연구에 관한 연구 편수와 비율이 상대적으로 국내외의 다 저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과정이 생략된 시스템 개발 연구들은 개발된 시스템들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바람직한 답이 생략된 것이므로 이 분야 연구에 연구자들이 모두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4. 연구 대상자 분석

국외/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의 연구 대상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1] 와 같다.

종합적으로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139편(53.1%)이며 일반적인 대상을 연구한 논문은 65편(24.8%), 교사나 교수, 대학원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21편(8.0%), 중·고등 18편(6.9%), 초등 17편(6.5%),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편(0.8%) 이었다. 국외/국내 학술지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모두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과반수이상(각각 53.6%, 52.7%)을 차지하였으며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 대상의 연구 대상자 편중 현상은 다른 분야의 분석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박종원(2006)은 말하기 논문 40년사를 회고하는 논문에서 56%의 국내 연구 논문이 대학생 대상임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편중현상의 이유는 연구자들이 대부분 대학에 소속되어 있어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이나 중·고등 대상의 영어교육은 대학생 대상의 영어

[표 11] 연구 대상자 분석

연구대상	국외학술지게재편수 백분율(%)	국내학술지게재편수 백분율(%)	세부항목별 합계 백분율(%)
유아	2 (1.8%)	0 (0.0%)	2 (0.8%)
초등	1 (0.9%)	16 (10.7%)	17 (6.5%)
중·고등	3 (2.7%)	15 (10.0%)	18 (6.9%)
대학	60 (53.6%)	79 (52.7%)	139 (53.1%)
일반	36 (32.1%)	29 (19.3%)	65 (24.8%)
기타	10 (8.9%)	11 (7.3%)	21 (8.0%)
학술지별 합계	112 (100.0%)	150 (100.0%)	262 (100.0%)

교육 이상으로 중요하므로 연구의 편이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생 대상의 연구 편중현상은 시정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국외/국내 학술지의 차이점 중에 두드러진 것은 초등대상의 연구 편수의 차이이다. 해외논문이 단 한편(0.9%)을 초등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국내 논문은 16편(10.7%)이 초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외 현장에서는 초등 영어교육이 국내에서만 주목받지 못하는 데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 초등영어 교육 열풍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고등 대상 연구는 국외(2.7%)에 비하여 국내 연구 편수(10.0%)가 많은 편이지만, 초등영어 교육 학회가 초등 영어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해 보자면, 대학생 대상이나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편중 현상들은 국외/국내를 막론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논문은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간된 국내외 학술지 6종 111권에 게재된 논문 중 CALL 분야와 관련된 262개의 논문을 연구 주제,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대상자 범주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주제 분류 방식에 따른 분석 결과는 언어기능에 관한 연구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이론적 연구, 시스템 개발 연구 등이 게재 비율이 높은 주제였다. 국외/국내 연구 주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양쪽 모두 언어기능에 관한 논문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두드러진 차이점은 국외 학술지 논문들이 이론적 논문의 게재 비중이 국내 학술지에 비해 큰 반면, 평가 분야는 해외에 비하여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방법 분석결과에 따르면 양적 연구 방법이 국외/국내 학술지 모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었으며, 국내 논문의 질적연구 방법 사용 비율은 국외 논문보다 더 높았으며, 국외 논문들은 이론적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연구 보다 더 높았다.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논문들이 대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초등학생이나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율은 국외보다 국내가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 논문들이 해외논문들에 비하여 주제, 방법, 대상 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 연구경향을 더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주제 면에서 보자면 평가에 관한 연구가 국외 연구 보다 더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근래 각광받고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이라던지 양적/질적 연구 방법도 더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대상도 대학생에 치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생 대상 연구도 해외에서 보다 활성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외와 비교하여 국내 연구가 개선해 나아가야 할 점들도 발견되었는데, 우선 주제 면에서 시스템 개발연구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CALL분야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수한 시스템의 개발은 CALL 분야가 독립적으로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중요한 분야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대규모 PLATO시스템 개발은 CALL분야가 독립분야로써 기능하게 하는 중요한 시점이었으며 CALL분야 연구의 중심에는 언제나 개발 연구가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실제 학생들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학습할 때 일어나는 상황들을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질적 연구와 시스템을 활용하였을때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실험연구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연구들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개발 연구가 선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개발 연구는 개인 한 연구자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들어 개발연구가 다른 연구들에 비해 비중이 덜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향후 CALL 분야의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 방법 면에서는 질적인 연구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외 연구에 비하여 국내 연구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0%가 넘는 국내 양적 연구의 편중현상은 여전하다. 특히 양적 연구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연구하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적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연구 방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 대상자는 지나치게 대학생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연구 대상자를 구하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계층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초등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초등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교육에서 중요한 단계인 중·고등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중·고등학생들은 대학 입학시험의 압박으로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입시 준비에 맞춘 수업이 보편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가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에 많은 양을 학습하는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며, 수업에 프로그램

램을 사용하였을 때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연구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CALL분야는 영어교육의 중요한 하위 분야로써 인식되고 있다. 테크놀로지가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동안 CALL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결과들을 보면 국내의 CALL분야 연구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현재 국외논문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국내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 속에서 그 미래는 밝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동호. (2006). 영어교육 학술지 40년 영작연구 회고와 전망. *초등영어교육*, 7(2), 97-114.
- 김정렬. (2002). 초등영어교육 연구방법의 흐름. *초등영어교육*, 7(2), 38-63.
- 김진완. (2004). 한국과 세계의 영어교육 연구방법론과 연구내용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의 영어교육 현장에의 시사점. *영어교육*, 59(4), 45-70.
- 김진완. (2006). 한국 영어교육의 연구동향과 과제: 연구방법, 연구성향 및 연구주제. *초등영어교육*, 7(2), 247-260.
- 박종원. (2006). 영어교육 말하기 논문 40년사의 회고와 전망. *영어교육*, 61(특별호), 57-72.
- 박준언. (2006). 영어교육에 게재된 영어 어휘 교육 관련 연구 개관. *초등영어교육*, 7(2), 137-148.
- 송희심, 이은정. (2004). 영화 CD-ROM이 영어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외국어교육*, 11(1), 131-151.
- 심진영. (2006). 영어교육을 통해 본 한국 영어 문법 교육과 학습 40년. *초등영어교육*, 7(2), 115-136.
- 오준일. (2006). 영어교육에 게재된 독해 관련 논문 분석. *초등영어교육*, 7(2), 73-96.
- 유현정. (2006). 학술지 논문을 통한 영어교육학 연구동향 분석. *외국어교육*, 13(3), 339-368.
- 이성희. (2005). 『외국어교육』 게재 연구 논문 실태 조사: 창간 10주년에 즈음하여. *외국어교육*, 12(1), 107-136.
- 이성희. (2006). 영어교육에 게재된 영어 교재 관련 연구 추세 분석. *초등영어교육*, 7(2), 149-170.
- 이영식. (2006). 한국 영어평가의 연구 발전 40년. *초등영어교육*, 7(2), 171-199.
- 장진태. (2003). Autonomous learning in on-line interactions. *외국어교육*, 10(3), 51-74.
- 조세경. (2006). 영어학습을 위한 podcasting의 활용. *멀티미디어언어교육*, 9(3), 241-254.
- 전지현. (2006).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최근 동향과 전망. *초등영어교육*, 7(2), 201-217.
- 차경환. (2006a). 영어교육 학술지 듣기논문의 학문적 변천 연구. *영어교육*, 61(특별호), 31-56.
- 차경환. (2006b).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영어교육의 방향. *멀티미디어언어교육*, 9(1), 167-185.
- 최인철. (2004).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채점자 엄격도 반영 및 유창성 측정 타당성. *외국어교육*, 11(2), 171-194.
- 최인철, 임해창, 박정. (2003). 영작문의 전산언어학적 채점 타당성. *멀티미디어언어교육*, 6(2),

221-242.

- 한종임. (2004). 인터넷 실시간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한 영어구두 언어능력 신장 방안. *외국어교육*, 11(2), 195-226.
- Al, Jarf, R. S. (2003) Training ESP College students in electronic searching.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6(1), 9-17.
- Beatty, K. (2003). *Teaching and researching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London: Longman.
- Choi, H. K. (2004). EFL students' perceptions on synchronous English text chatting: Implications for its implementation.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7(2), 35-63.
- Cohen, L. & Manion, L. (1994).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London: Routledge.
- Colpeart, J. (2006). Toward an ontological approach in goal-oriented language courseware design and its implications for technology-independent content structuring.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9(2-3), 109-127.
- Cushion, S. (2006). What does CALL have to offer computer science and what does computer science have to offer CALL?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9(2-3), 193-242.
- Debski, R. (2003). Analysis of research in CALL(1980-2000) with a reflection on CALL as an academic discipline. *Recall*, 15(2), 177-188.
- Farmer, R., & Gruba, P. (2006). Towards model-driven end-user development in CALL.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9(2-3), 149-191.
- Felix, U. (2005). Analysing recent CALL effectiveness research: Towards a common agenda.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8(1/2), 1-32.
- Fisher, R. & Farris, M. (1999). The libra multimedia authoring environment and CALL multimedia courseware. *CALICO Journal*, 17(1), 59-82.
- Fuente, M. (2003). Is SLA interactionist theory relevant to CALL? A study on the effects of computer-mediated interaction in L2 vocabulary acquisition.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6(1), 47-81.
- Grace, C. A. (1998). Retention of word meanings inferred from context and sentence-level translations: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beginning-level CALL software. *Modern Language Journal*, 82(4), 533-544.
- Hemard, D. (2006). Design issue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learner-computer interaction in a web-based environment: Activities vs. tasks.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9(2-3), 261-276.

- Hemard, D., & Cushion, S. (2003). Design and evaluation of an on-line test: Assessment conceived as a complementary CALL.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6(2-3), 119-139.
- Hubbard, P. (2005). A review of subject characteristics in CALL research.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8(5), 351-368.
- Hulstijn, J. H. (2003). Connectionist models of language processing and the training of listening skills with the aid of multimedia software.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6(5), 413-425.
- Jones, F. R. (1991). Mickey-mouse and state-of-art: program sophistication and classroom methodology in communicative CALL. *System*, 19(1), 1-13.
- Kim, I.-S. (2005). Developing a web-based listening course.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8(1), 116-140.
- Kern, R., & Warschauer, M. (2000). Introduction: Theory and practice of network-based language teaching. In M. Warschauer & R. Kern (Eds.), *Network-based language teaching: Concepts and practice* (pp. 1-1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won, C. J. (2003). The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view's on CALL.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6(2), 35-52.
- Levy, M. (1997).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Context and conceptu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vy, M., & Stockwell, G. (2006). *CALL dimensions: Options and issues in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iou, H-C. (2000). Assessing learner strategies using computers: New insights and limitation.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3(1), 65-78.
- McCarthy, B. (1998). CALL design: A grammar lesson for the student and a lesson in applied linguistics for the designer. *On-Call*, 12(2), 26-37.
- Peterson, M. (2006). Learner interaction management in an avatar and chat-based virtual world.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9(1), 79-103.
- Seliger, H. & Shohamy, E. (1989). *Second language research metho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kehan, P. (2003). Focus on form, tasks and technology.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6(5), 391-411.
- Son, J. B. (2007). Learner experiences in web-based language learning.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20(1), 21-36.
- Sun, Y., & Dong, Q. (2004). An experiment on supporting children's English vocabulary

learning in multimedia context.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7(2), 131-147.

Ward, M. (2006). Using software design methods in CALL.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9(2-3), 129-147.

Zapata, G. C. (2004). Second language instructors and CALL: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framework.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7(3-4), 339-356.

Key words: CALL, survey, literature review, methodology, topic

Author(s): Kim, Jie Young (Chung-Ang University); jk221@cau.ac.kr

received: September 13, 2007

accepted: November 27, 2007